

4.16 선언 제정 1차 전체회의 27조 기록

1번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00이다. 왜냐하면~.

박지영: 20대. 대학교에서 세월호 기억 모임을 하고 있다. 내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의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첫 날 처음 소식들었을 때만 해도 별 일 아닐 줄 알고 넘겼었는데,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잠도 못 자고 상황을 지켜봤었다. 구조가 될 줄 알았다. 끝끝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최창희: 50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의 자녀가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이었다. 처음에는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던 것이 감정의 변화를 거쳐 지금은 매우 분노스럽다. 국가에 배신 당했다고 생각한다. 구조가 없었던 구조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죽어도 그만인 개미 떼 취급을 하고 있구나 느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정 바깥으로 나와 광화문에 나와서 피켓도 들고 하고 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존중감을 키우게 된 계기 같다.

장성수: 50대. 부동산 중개업. 나도 주말에 광화문에 가서 피켓팅을 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느끼는 것은 생명경시풍조다. 반민주 독재정권이다. 학살이다.

김보준: 20대. 대학생. 학교에서는 아니고 따로 지인들과 세월호 기억 모임을 하고 있다. 내가 느꼈던 감정은 불안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날 보호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은 남 일처럼 여기셨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다.

신중수: 50대. 성남 세월호 대책위. 노동운동을 했었다. 내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의 느낌은 '행동'이다. 아들에게 처음 소식 듣고 별 일 아닌 줄 알았다. 진행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느꼈다. 인양 건도 그렇고 숨기기에 급급한 사회다. 문제가 너무 많다.

엠건: 20. 청소년 만나는 일을 한다. 내가 느낀 건 두려움이다.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시간이 흘러 언젠가 그런 일도 있었지, 그렇게 말하고 말게 되면 어찌나. 점점 더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말까봐. 잊어 버릴까봐 제일 두렵다.

2번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쯤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00이다.

- 집회 때 유족들을 비웃는 전경들의 모습이 잊혀 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취하는 냉소적인 태도에서 나까지 상처받는 느낌이 들었다.

- 나도 비슷한 걸 느꼈다. 유족들을 비웃는 제 3자들을 보면 공감보다는 냉소와 조롱을 보낸다. 일베 폭식 시위가 있고나서 이 사회에서 어디까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라진건가 싶었다.

- 나도 비슷하다. 사건 당일에 친구들이랑 다들 동아리실에 모여 있었는데, 다른 걸 못 했다. 다 소식 올라오는 거 보느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때 한 명이 방에 들어와서 냉정하게 말했다. 다 끝났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다.

(2번에 대해서는 자리에 모인 20대들이 전부 비슷한 얘기를 했다.)

- 사건사고 이후에 현장검증이 있지 않았는가? 왜! 수많은 인명피해 참사에 현장 검증을 하지 않는가. 사람을 죽인 선원들 형량을 줄여주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 부모들이 투쟁 하느라 충분한 애도를 못 했다. 애간장이 녹고, 뼈마디가 녹는 느낌이었을 것. 부모들이 자식을 잃었기에 여기까지 끌고올 수 있는 것. 너무 죄송하다. 끝까지 해달라 부탁드리고 싶다.

- 구조할 수 있었는데 해경 해수부가 민간어선, 구조선까지 막았다. 기 막힌 일이다.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집회 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인데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청와대를 위한 경찰이다.

- 매스컴에서 올바른 얘기를 전해주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있다. 교육도 그렇고, 남을 돌볼 생각을 않는다.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기초적인 생각들이 없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마냥 당하고만 있다. 실제로 잘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 내 일상에서의 부조리에 눈 감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경들이 당시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 몸 사리느라 그렇게 됐다고 들었다. 일상적인 관료주의, 책임 회피, 내 자리만 보전하면 된다.. 개개인이나 조직들에서 그런 생각, 생활을 하는 일상들이 모여서 커다란 부조리를 만드는 것 같다.

3번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000할 권리이다.

- 언론 보도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

- 언론이란 게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데, 다들 자기 살기가 바쁘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생각할 여유와 시간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그러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최저생계, 복지 정책 등..

- 사회적 분위기가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소신, 가치를 내세우는 순간 이상한 애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다. 내 생각과 양심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 나도 비슷하게 무엇이든 말해도 비난 받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 저는 가고 싶은 데를 갈 권리라고 적었다. 집회 때 청와대, 그거 한 번을 못 가는 게 너무 답답했다. 이 곳에서 저 곳, 이 몇 발자국도 못 떼게 하는 게 정말.. 한 걸음도 못 떼게 하는 광경을 봤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못 가게 한다. 영상 촬영도 못 하게 하고. 손, 발을 묶어버리면서 무기력해졌다.

- 우리 아들도 보면 세월호 집회 같은 데 잘 안 나간다.

- 우리 또래 애(20대)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정서가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집회참여가 곧 행동의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집회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반대자가 되지 않는 것 정도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무기력한 것. 국민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내가 만약 지금의 대통령 같은 권력을 갖게 된다면 나라고 과연 다를까?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다. 탄핵을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뿌리 깊어 있다고 본다.

- 소수자의 의견을 들어줄 권리라고 썼다. 법도 다수가 정하지만 합의라는 과정

을 거친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다. 집회, 시위에서 보호 받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

- 저는 함부로 동정 받지 않을 권리라고 썼다. 유가족들이 희생자 프레임 안에만 갇히는 게 문제적인 것 같다. 자기 권리를 말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한껏 거칠어질 수 있는 권리도? 욕도 좀 하고, 거칠게도 굴고! 당연히 분노가 쌓여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건데 도덕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연약한 희생자로만 머물지 않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분들) 맞다. 더 큰 부도덕이 있는데 사소한 것들에만 집착한다.

- 부익부 빈익빈.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라. 난 이게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다른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

오늘 토론 소감 및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 요즘 좌절감이 많았다. 국회의원도 어찌지 못 하는 박대통령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하면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난다.

- 한동안 시간감각이 없이 살았다. 작년 4,5월 이후로 겨울 즈음엔 세월호를 잊고 살았었다. 올해 4월이 다시 오면서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 나도 세월호 모임을 가질 즈음에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 평소엔 생각을 잘 안 한다. 기사 쓰는 것도 일부로 잘 안 본다. 피하게 된다. 왠지 모를 죄책감 때문에 더. 내게도 내 삶이 있고, 세월호 싸움에 내 시간을 다 쏟을 수는 없다. 한 달에 한 번 모임, 이걸로 나를 위로하고 뭐라도 하고 있다고 단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싶은 회의감들이 이 자리를 가진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 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계속 붙잡고 가려면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그런 시선의 전환, 받아들이는 감각의 전환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죄책감, 무거움, 도덕적 책임감을 넘어서서 어떻게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내 문제로 끌어올 것 인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세월호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이 나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지.. 그 연결망을 알 수 있는 애깃거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 세월호 이후 가장 많이 느낀 건 불안감이다. 마음을 보듬어주는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 문학? 문화제나 예술제 같은 것도 좋을 것 같다. 공감력을 기르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으면.

최창희: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짓밟을 수 있나. 잠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깨워야 한다. 국민을 뒷받침할 정당이 필요하다. 사회가 만드는 불평등한 생각들을 다 없애나가고 싶다.

-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 말씀해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이상적인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들로 취급하는데, 다들 살면서 좌절할 게 많아 그런신다는 건 안다. 그래도 무기력에 지지 않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자기 확대를 하면 안 된다. 다 내 문제다,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다. 근데 이제 보니 사회 전체의 잘못된 구조 때문이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 나 하나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들도 회복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내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었는데, 요즘 사람들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한다.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 세월호 콘서트 때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왔었다. 홍보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 대안적인 언론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인들에게 많이 알려야 할 것 같다. 팩트 TV 등등. 한 가지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주어져야 한다.
- 확실히 낱알으로 흩어져서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걸로는 뭘 못 하는 것 같다. 단위를 꾸리고, 만드는, 대책위나 대학 내 모임처럼 조직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 이걸 사소한 건데 노란 리본을 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도 요즘 다시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주변인들이 나를 보고 다시 기억을 환기하게 된다고들 하더라.
- 각자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일들에서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끝.